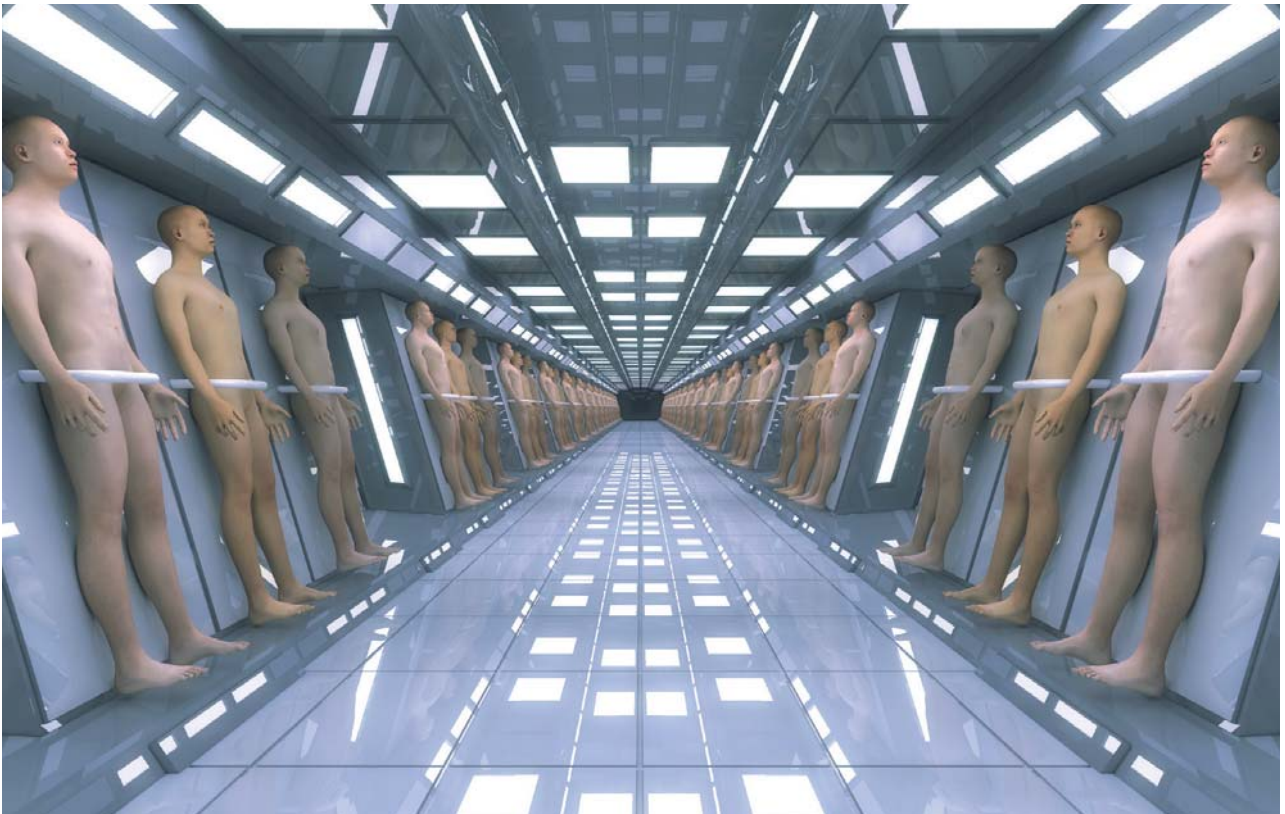


동물복제의 시대, 문학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 강사)



동물복제는 가능성의 발견

20세기가 마지막 페이지를 써갈 때인 1996년,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은 사건이 일어났다. 복제양 돌리(Dolly)가 탄생한 것이다. 일본의 줄기세포 연구자인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이 사건을 두고 “과학소설 같았다”고 말했다. 스코틀랜드의 발생학 전문가인 이언 윌무트(Ian Wilmut)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6년 된

암양에서 젖샘 세포를 추출했다.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다 자란 양의 젖샘세포 핵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양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 돌리는 무려 277번의 시도 끝에 태어났다. 이것은 최초의 포유류 체세포 복제이다. 복제양 돌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징이다.

이언 윌무트는 젖샘세포를 사용했다는 것을 강조하

려고 가슴이 큰 미국의 컨트리 가수 돌리 파턴(Dolly Parton)의 이름을 따서 돌리라고 지었지만, 공저한 책 제목은 『제2의 창조』(The Second Creation)로, 부제는 ‘돌리와 생물학적 통제의 시대’라고 달았다. ‘생물학적 통제’란 말은 매우 충격적인 제목이다. 통제란 내가 출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힘을 가졌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돌리에 사용된 복제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인간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돌리가 갖는 의미는 자못 컸다. 이것은 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생명이라는 영역에, 인간이 훨씬 더 가까이 접근했음을 뜻한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칸트는 순수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여 무신론 이신론의 철학적 근거를 만들었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1859)을 출간하여 생물진화론의 새 장을 열었다. 이후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정의는 급속히 약해졌다. 인간이 영혼을 갖고 있다는 시각은 이제 문학, 철학, 과학 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 종교에서도 의심을 받고 있다. DNA 이중나선구조를 발견하여 1962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프랜시스 크릭(Francis Crick)은 『놀라운 가설』(The Astonishing Hypotheses)에서 이렇게 단정한다. “인간이 육체가 없는 영혼을 가졌다는 생각은 불필요하다.”

크리스천들은 영혼을 믿지만, 다수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인간을 육체로만 간주한다. 잘못 든 길이 지도를 만들고, 전쟁터의 뒷골목에도 행복한 웃음이 피어나지만, 세계를 결핍되고 불완전한 곳으로만 해석하는 이는 여전히 많다. 무신론자인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인간의 신체가 불편하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복제 기술은 완벽으로 가는 길을 연 발견으로 인식된다. 식량난과 난치병을 동시에 해결하기 때문이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암과 척추 손상 같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같은 것이다.

자기자각이 있어야만,
삶의 시작과 종말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만,
인간은 인간다워진다.

하지만 대다수는 여기서 걸음을 멈춘다.

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줄기세포연구의 유익들은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달콤하다.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볼커 벡(Volker Beck) 같은 사람들이 복제연구에 브레이크를 걸지만, 과학자들은 왜 복제가 신의 영역인가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빠르게 축적되는 과학지식과 진화론으로 훈련된 지식인들은 ‘창조주로서의 신’이란 개념을 배제했고, 신을 자연으로부터 추방하였다. 다윈 이후 신은 자연에선 설 자리가 없다. 그 여파는 강력하여 줄기세포연구는 ‘질병’과 ‘죽음’이란 메타포로 상징되던 인간의 한계를 깨트리는 종교적 이상처럼 여겨진다.

삶을 치유하는 해결책은 하나가 아니다

슈퍼맨, 원더우먼, 스파이더맨, 배트맨 같은 캐릭터들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상징한

다. 힘이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인간이 한계를 인정할 때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왜 하는가를 생각할 때 드러나지만, 이걸 깨닫기는 쉽지 않다. 줄기세포 치유는 불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에게 희망으로 다가서기 때문이다.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Moroslav Volf)도 9년간 불임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 고통을 그는 이렇게 토로한다.

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9년이란 시간은 매달 독이 든 샘물에서 쓴 물을 마시는 것 같았다.

인간은 고집스런 존재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려면 강한 충격이 필요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만큼이나 타인에게도 속해 있고, 지극히 개별적인 체험도 알고 보면 인간이란 공통분모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그래서 문학을 읽어가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 내면 풍경에 변화가 일어난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같은 것이다. 자기자각이 있어야만 삶의 시작과 종말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만, 인간은 인간다워진다. 하지만 대다수는 여기서 걸음을 멈춘다.

미국의 첫 번째 계관시인이었던 로버트 펜 워렌(Robert Penn Warren)은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힌다. 「우리는 왜 소설을 읽는가?」란 글에서 워렌은 이렇게 말한다. “소설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주지는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소설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지조차 몰랐던 것들을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사실이다.” 삶의 여정은 예측 불가능한 장애물로 가득하고, 산다는 것은 이런 난관을 통과하는 과정이지만, 유전자 혁명, 과학기술의 발전만이 인간을 돕는 것은 아니다. 문학적 상상력도 우리를 돕는 또 다른 도구가 될 수 있다.

인생의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그걸 발판삼아 성장하려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기인식을 통해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해결책은 하나가 아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도, 좋은 책은 몇 안 된다. 좋은 책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읽고 나면 줄거리가 아니라 생각이 남는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얻게 된다.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를 읽고나면, 실명이라는 장애가 어찌면 진정한 인간의 본질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역발상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질문 혹은 대답에 눈뜨게 된다.

신학자 볼프는 불임으로 고통을 받았다. 후에 두 명의 남자 아이를 입양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 불임이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아이란 선물을 주기 위한 조건이었다. 부부에게 불임이 없었다면 입양한 두 아이는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한다. 불임은 장애였지만 두 아이를 만나는 전제 조건이 된다. 현실을 해석하는 틀이 거울에서 등불로 바뀐 것이다. 복제는 불임이란 현실을 그대로 반사한다. 하지만 볼프 교수는 복제란 거울을 입양이란 등불로 재해석하였다.

—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소설이 필요한 이유 —

산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고 축복이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깨닫기란 쉽지 않다. 작가 문정희는 “살아 있다는 것은 파도처럼 끝없이 몸을 뒤집는 것이다”라고 표현한다. 몸을 뒤집는다는 것은 질문을 던진다는 뜻도 된다. 소말리아 출신의 세 명의 작가들-누루딘 파라(Nuruddin Farah), 아얀 히르시 알리(Ayaan Hirsi Ali), 와리스 다리(Waris Dirie)-의 책들을 읽게 되면, 남자들의 나라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소설을 읽으며 낯설게 느껴지는 질문의 답을 생각해볼 기회를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문학은 사회에 중요하다. 문학은 사회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문학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문학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난제들을 풀어준다. 소설은 삶에 지쳐있는 독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준다. 어떤 이에겐 힐링의 방법이 된다. 프랑스 작가 클로드 폰티(Claude Ponti)는 글을 쓰면서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인간사는 냉정한 팩트만의 집합이 아니다. 이것을 잘 알기에, 문유석 판사는 『개인주의자 선언』에서 판사도 책과 영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 작가 중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천된다. 그가 쓴 소설 중 『언더그라운드』가 있다. 1995년 3월 20일 도쿄의 지하철에서 화학무기로 사용되는 사린가스를 살포한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이 사건으로 12명이 사망하고 55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중 다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사건의 가해자는 음진리교를 믿는 신자들이었는데, 그들 중 명문대 출신의 이공계 연구원들도 있었다. 하루키는 픽션(fiction)을 읽어본 경험의 부재가 엘리트 과학도들을 광신도로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바로 이점에 공감하면서 문유석 판사는 문학이 필요한 이유를 지적한다.

검증된 법칙과 데이터의 세계에서만 살던 이가 아

협소한 상식에만 갇혀 있는 인간은
비상식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인간과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데
실패하기 십상이다.

아무리 첨단과학이 필요해도
여전히 더 많은 문학이 필요한 이유다.

사하라 쇼코(옴진리교 교주)처럼 통상적인 사고의 범주를 넘어선 예외적 인간의 극단적인 상상력과 조우했을 때 오히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협소한 상식에만 갇혀 있는 인간은 비상식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인간과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데 실패하기 십상이다. 아무리 첨단과학이 필요해도 여전히 더 많은 문학이 필요한 이유다.

하루키를 비롯한 수많은 작가들이 보여주듯이, 내일은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안고 살고 있다면, 소설을 읽어야 한다. 『언더그라운드』는 인간의 삶이란 한 꺼풀 건어내고 보면 너무나 닳아 있다는 걸 보여준다. 시카고대 윤리학 교수인 마사 누스바움(Martha Nuusbaum)은 소설은 허구라는 가상세계를 통해 독자의 윤리적 고찰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누스바움은 『사랑의 지식』에서 소설은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는지를 더 잘 가르쳐준

다고 지적한다. 소설은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가 갖는 가치를 재점검한다.

—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

사린가스 살포나 르완다의 인종청소 같은 비극이 일어난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묻게 된다. 사린가스 사건의 주동자는 과학도였다. 르완다에서 다수 종족인 후투족과 소수종족인 투치족이 있다. 이들은 동일한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 같은 마을에서 농사지며 함께 살았다. 벨기에가 이곳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투치족을 지배계급으로 삼아 다수인 후투족을 지배했다. 르완다가 독립하자, 투치족은 2등 국민으로 전락했고, 훗날 일어난 대학살의 원인이 되었다. 『내 이름은 임마꿀레』는 투치족 한 소녀에게 일어난 비극을 보여준다.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가 소설에 끌리는 이유는 그것이 풀어내는 이야기 때문일 것이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해결책을 약속한다. 우리는 숨죽이며 이야기가 어떻게 끝맺게 될지 기다린다. 이야기의 결말도 독자는 궁금하지만, 그 결말이 갖는 의미에도 관심을 갖는다. 소설은 워렌이 말했듯이 독자에게 필요했으나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도 몰랐던 것을 일깨워준다. 문유석 판사는 수많은 사건처리에 허덕이다보면 사건 당사자를 인간이 아닌 일의 대상으로 보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자신에게 적용한다.

복제인간을 다룬 클론 서사(clone narrative)는 SF 소설이 즐겨 다루는 주제 중 하나이다. 클론을 주인공으로 복제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클론 서사는 인간

복제의 윤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나를 보내지 마』(Never Let Me Go)에서 영국작가 가즈오 이시구로는 인간의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복제되어 온 존재인 클론들을 다룬다. 클론들은 그저 의학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어차피 기증 후 죽게 될 자신들의 작품을 수집한 이유를 묻는 토미에게, 마담과 에밀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다.

작품이란 그걸 만든 이의 내적 자아를 드러내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나? 너희의 작품이 너의 ‘영혼’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 우리가 너희 작품을 걷어 온 건 거기에 너희의 영혼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좀 더 세련되게 말하자면 그걸로 너희한테도 영혼이라는 게 있음이 증명되기 때문이란 말이다.

에밀리 선생님은 클론인 캐시에게 장기교체로 암을 치유할 수 있게 된 세상에서 과연 그 치료를 포기하고 희망 없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물으며 답한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너희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단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우리와는 별개의 존재라고,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납득시켰기 때문이지. 그것이 우리의 작은 운동이 시작되기 전의 실상이었단다. 우리가 무엇에 맞서야 했는지 알겠지?

마담과 에밀리 선생님이 시작한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것은 사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에 반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장애나 결핍은 즉각적인 답을 원한다. 하지만 소설은 우리에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일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고통

과 쓰라림, 혹은 모욕과 배반의 감정을 수반하지 않고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소설 곳곳에 깊고도 오래가는 흔적을 남겨놓았다.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대로 될 것이다. 소설은 그것을 보여준다.



글 |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 강사.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시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며, J.M.콧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룬다티로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